

8장 사유를 담아야 한다

1. 그대는 왜 소설이 쓰고 싶을까?

왜 그대는 소설을 쓰고 싶어 하고, 쓰고 있는 것일까? 영어 수학 공부하기에도 벅찬 청소년기에. 폼 나 보이니까? 이성 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일장이나 문예공모에서 상을 타기 위해서? 이런 바람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대는 궁극적으로 그런 것(어떤 눈에 보이는 성취)을 바라고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닐 테다. 그대는 그냥 쓰고 싶었던 것이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소설을 썼던 것이다. 그대에게 소설을 쓰도록 만든 그 자발적인 의지는, 대체 언제 어떻게 그대에게 다가온 것일까?

편의상 우리에게서 외향과 내면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자. 외향은 겉으로 보여 지는 마음이나 의식이고, 내면은 내 안에 갇혀 있는 마음이나 의식이라고 하자. 우리는 내면대로 살 수가 없다. 내면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외향은 학교에 가야만 한다. 외향은 학교에 가서 또 학원에 가서,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제도 안에 갇혀, 뭔가를 계속해서 습득해야 하고, 선생님과 학우들이라는 무수한 타자들과 쉽 없이 관계해야 한다.

아주 많은 경우에 외향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다. 단순한 예로, 점심을 먹은 다음에 내면은 즐기치게 잘 것을 요구하지만, 외향은 잘 수가 없다. 억지로 잠을 자지 않고 버틸 경우, 내면은 상처를 받는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서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이다.

학교는 거의 모든 점에서, 그대들의 내면을 공격한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강요하여 내면을 힘들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동안, 해야만 한다는 외향과, 하지 말자는 내면이 치열하게 싸워댄다. 결국 해내서 보람을 느낀다면 외향과 내면이 동시에 잠깐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해내는 과정에서 이미 내면은 상당한 정도로 아팠다.

이 늘 상처 받고, 통제 받고, 억압 받으며, 자율과 타율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면은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스트레스는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내면의 피로감이다.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다. 외향이 쿵쿵 잠들어 있는 동안, 종일 아팠던 내면은 수십 가지 꿈을 만들어 피로감을 해소시키려고 안

달복달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어갈 수록 꿈꾸는 것만으로는 내면의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다.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내면은 아주 깨끗해졌다. 꿈속에서 모든 것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초등학교를 들어가자, 중고등학생이 되자, 꿈으로는 도저히 해소가 안 되는 스트레스들이 그대들의 내면에 검은 안개처럼 드리워져 있다. 아는 게 많을수록 고민, 근심, 걱정이 늘어나고 이 내면의 병들은 꿈이 아닌 다른 치료방법을 원한다.

(실은 무엇보다도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잠을 잔다는 것은 활발하게 활동한 뇌만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 못지않게 하루를 힘들게 산 내면도 쉬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잠이 부족하고, 그래서 뇌와 내면 모두가 힘들게 산다. 그래서 잠 부족한 학생들의 뇌와 내면은, 학교에서라도 그대들을 재우려고 애쓴다.)

다행스럽게도 그대들은 자신의 내면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스포츠로, 어떤 이는 게임으로, 어떤 이는 연애로, 어떤 이는 연예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어떤 이는 여행으로 푼다.

단순히 땀을 흘리기 위해서, 그대들의 벗들이 축구공 하나에 농구공 하나에 목숨 걸듯이 달려들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내면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땀방울은 실은 내면의 피로가 분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 정말이지 기이한 방법으로 내면을 치료하는 자들이 있다. 바로 그대들이다. 소설쓰기로 내면을 치료하고자 하는 취향을 가진 이들은, 청소년 중에도 극소수다. 그대가 소설을 쓰고자 했던 것은, 시, 산문, 일기 같은 것으로도 내면의 피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소설을 쓸 때 가장 행복하다고 착각할 여지가 높다. 에이포지 혹은 원고지를 한 장, 두 장 채워가면서 그대들은 내면의 응어리나, 자유의지를 끄집어낸다. 허구의 이야기라는 소설 형식을 빌려, 내면의 응어리를 분쇄하고, 자유의지를 마음껏 실현한다. 그러니까 그대 소설은, 그대 내면의 해소장인 셈이다.

때문에 그대가 소설을 쓴다는 것은 칭찬을 못 받아도, 상을 못 타도, 아니 아무에게 보여주지 않고 혼자만 읽고 보아도, 즐거운 일이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해 쓴 것이고, 쓰는 자체가 즐거웠던 것이다.

그대들 중에는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아직 써보지 못한 이들도 많은 것이다. 국어시간에 배운 것에 따르면, 소설은 정해진 형식이 있고, 비유법도 적절히 사용해야 하고, 주제라는 것도 담아내야 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소설인지라, 써보려고 해도 한 문단을 못 쓰고 절망해버리고 지쳐버린다. 하지

만 국어 시간에 배운 것은 시험 볼 때만 기억하고, 소설을 쓸 때는 다 잊어도 좋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다른 친구들이 공을 차는 것과 같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일이다.

다만 이런 것이다. 함께 공을 차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니는 자가 가장 큰 즐거움을 맛보고, 이왕이면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하거나 골을 넣어서 돋보일 때 가장 큰 보람을 맛본다. 소설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최선을 다해서 쓸 때 가장 즐거울 테고, 소설을 써서 칭찬을 받거나 상이라도 타게 된다면 즐거움을 넘어서 보람(성취감)도 맛보게 느끼게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얘기할 뿐이다.

그대가 소설을 쓰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대가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이미 소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뭔지도 모르면서 소설을 쓰려고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맞다. 그대가 소설이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소설이다. 선생님들, 교과서, 문예공모요강, 글을 좀 쓴다 하는 친구들, 각종 사이트의 대답, 이들이 말하는 소설은 그들의 소설일 뿐이다. 그대의 소설은 그대가 생각한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소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 소설을 쓰고 싶어졌다면, 무조건 쓰면 된다.

하지만 무조건 쓰기 좀 거시기 해서, ‘왜 쓰려고 하는지’ 스스로 알고 싶어졌다. 그 이유를 알 기전에는 쓸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 말이 도움을 되길 바란다. 그대가 소설을 왜 쓰고 싶은 것이냐면, 그것은 소설을 쓰는 동안 그대의 내면을 꿈이라도 꾸는 것처럼 정화시키고 싶어서였다. 소설을 쓰고 싶으면, 써라! 그대가 즐겁게 써내는 것이 바로 그대의 소설이다!

2.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처음 소설을 쓸 때는 즐거웠는데, 한바탕 꿈을 것처럼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소설을 써도 즐겁기는커녕, 악몽을 꾸 것처럼 불쾌해진 이들이 있을 테다. 소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렇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축구를 하면 누구나 스트라이커고 누구나 즐거웠다. 그런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축구를 잘하는 아이들만 축구를 하면서 즐겁게 되고, 나머지는 차차로 응원만 하는 아이가 된다. 마음껏 뛰어다니며 차고 싶은 대로 차야 스트레스가 풀릴까 말까한데, 동료들은 작전플레이를 원하고 헛발질이라도 하면 지청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즐거운 축구가 아니라 악몽축구가 되는 것이다.

소설도 그렇다. 소설이라는 것은 일기가 아니다. 일기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명의

독자를 원하지만, 소설은 가능하면 많은 독자를 원한다. 소설은 나 혼자 읽고 좋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치료를 다른 이들도 좀 읽어서 그들에게도 내면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소설을 쓰는 이들은 필시 독서 달인들인 테다. 그들은 독서의 달콤함과 즐거움을 일찍이 맛보았으며, 독서는 내면치료 방법인 동시에 외향(생각하는 능력)의 크기도 확장해 주는 아주 매혹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이들이 독서로 만족하지 못하고 소설을 쓰고자 했으며 썼다는 것은, 자신의 소설 역시 남들에게 그런 매혹적인 독서의 대상이 되었으면 하고 바랐던 것이다. 이 욕심이 문제가 된다.

소설을 좀 써보니, 내 마음대로 마구 써서는, 독자가 읽으려고 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만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독자가 생긴단 말인가? 비로소 국어시간에 배운 것들(소설 구성의 5단계, 문장도, 주제와 제재와 소재의 상관관계 등등)이 된 소리였는데 깨닫게 된다.

국어시간에 배운 것들은, 그리고 수많은 글(소설)쓰기 지도책들에 써어 있는 소리들은-거의 똑같은 소리고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인데-결국, ‘이렇게 식으로 써야만 독자가 재밌게 읽어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진짜로 속 터지는 것은, 국어시간에 배운 바대로, 또 글쓰기 지도책이 하라는 대로 해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이다.

기실 당연한 일이다. 이론은 그저 이론일 뿐이다. 가르칠 수 없는 문학을, 가르쳐서 먹고 사는 어른들이, 가르쳐보겠다고 억지로 짜내서 정리해낸 그럴 듯한 설명서일 뿐이다. 설명서는 설명일 뿐 그 물건이 아닌 것이다. 참으로 그럴 듯하고 올바른 소리들이지만, 어려운 설명문이기 때문에 그대들에게 도움이 되기 어렵다. 오히려 ‘아는 게 병’인 상태로 만들어줄 뿐이다. 설명서대로 하다가 내면이 풀리기는커녕 내면에 울화만 더 쌓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대체 어찌해야 된단 말인가? 욕심을 버리는 게 좋다. 청소년기에 소설을 쓰는 것은 상을 타기 위해서도 인터넷에 올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런 것을 바라니까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걸 안 바랄 수 있단 말인가? 어차피 소설이라는 것은 독자에게 읽히기 위하려는 욕심의 덩어리이고, 그렇다면 청소년이 소설을 써서 독자에게 읽히는 방법은, 상을 타서 알려지거나, 인터넷에 올려 소문이 나거나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주위에는 그런 경로로, 도서상품권 사냥꾼 소리를 듣는 친구도 있고, 벌써 책을 내서 유명해진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그들이 명백히 있는데, 어떻게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인가?

사실은 욕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욕심을 버릴 수 없다면, 아주 강력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시기질투에 불과한 열렁뚱땅 열치기 욕심은 내면만 괴롭다. 이왕 욕심을 가질 것이라면, 그래, 나도 한 번 상 타보자, 고교작가가 되보자, 하는 대단한 욕심을 가져야 한다.

실은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고난 재능도, 끊임없는 노력(다독, 다상량, 다작)도 아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욕심(의욕, 의지, 욕망, 욕수, 승부욕 등등)이다.

나는 차라리 설명서보다는 물건을 자주 보라고 권하고 싶다. 윈더걸스가 그들 노래의 악보와 춤에 대한 설명서를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자. 그 악보와 설명서만 보고는 흥내 낼 수 있는 이가 드물 것이다. 하지만 설명서 없이 윈더걸스가 노래하고 춤추는 동영상을 본 이들은, 몇 번만 보고도 비슷하게 노래하고 춤춘다. 설명서보다 실제 물건이 중요하다.

그대들이 소설 쓰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소설창작이론서를 보는 것보다, 좋은 소설을 많이 읽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이론서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실제 소설은 쉬운 얘기를 가장 쉽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어차피 그대들의 경쟁자는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요새는 어떤 이야기를 어떤 문체로 어떤 구성으로 써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또래들의 당선작, 바로 윗세대들의 소설을 읽는 것이다.

물론 그런 소설을 모방해서는 안될 것이다.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모방작이 아니라, 그대만이 할 수 있는 그대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대가 다른 훌륭한 친구들의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아,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를 맛깔나게 펼쳤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대도 자기만의 이야기를 찾아내서 자기 식으로 맛깔나게 할 생각을 해야 한다.

내가 청소년문학공모 심사 때 가장 곤혹스럽게 느낀 것은, 그대들이 왜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였다. 독자는 단순하다. 그대들의 경우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어놓기만 해도 훨씬 좋은 성과 거둘 텐데. 안타까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멀리 내다보고 있는 그대들에게 조언하고 싶다. 그대가 정말 소설가가 되고, 소설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멀리 내다봐야 한다. 이십대 초반에 작가가 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평범하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늦으면 30대 후반에 될 수 있다. 소설은 천재들의 게임이 아니라 평범한 이들과 둔재들의 게임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설은 인생에 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좀 살아봐야 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대학가기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소설은 잡다하게 많이 아는 자가 쓸 수 있다. 국어(우리말)의 심오함, 외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수리적인 탐구력, 예체능과 각종 상식에 방대한 습득, 이 모든 것을 유일하게 할 수 있을 때가 중고등학교 때다.

강제적이라는 게 좀 슬프지만, 사실 강제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대들이 반강제적으로 습득한 지식과 수리탐구력은, 그대들이 소설 쓸 때 가장 빛나는 밑천이 되어줄 것이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 쓸데 없는 것들을 지겹게 공부한다가 아니라, 나중에 소설을 잘 쓰기 위해 이 잡다하게 중요한 것들을 즐겁게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대들이 대학에 가보면 알 테지만, 대학은 사실 취직공부나 하는 데다. 잡다한 공부는 오로지 혼자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두루 방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절은 중고등학교 시절뿐이다.

*** 요약 정리**

그대여, 소설이 쓰고 싶으면 그냥 써라. 그냥 쓰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잘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 욕심을 확실히 가져라. 잘 모르는 얘기를 하지 말고 잘 아는 얘기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보다 성과가 높을 테다. 그리고 멀리 내다본다면,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대에게 다시는, 소설의 가장 큰 밑천인 방대한 지식과 사유력을 연마할 시절은 없을 테니. □